

新安郡 智島面

海中發見 青磁水瓶

李 浩 官

一九七六年 一月 九日 全羅南道 新安郡 智島面 防禦里 海岸의 海中에서 發見된 青磁水瓶 三點과 白磁碗 및 白磁皿, 土器壺, 青磁蓋臺等 七點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紹介하고자 한다. 文化財管理局에 接受된 埋藏文化財 發見申告와 그 遺物을 살피 본다면는 全羅南道 新安郡 智島面 羽田里 一五二 거주 박창석(四一歲) 漁夫와 全羅南道 務安郡 望雲面 牧東里 五五 거주 최평호(三五歲) 氏에 依하여 發見申告된 青磁水瓶 外 六點이었다. 以上の 遺物을 發見케된 動機는 防禦里 海岸 一帶에서 漁撈作業을 하다가 魚網에 걸려 올랐은 遺物들로서 이 一帶는 평상시 潮水干滿의 差가 심하여 몹시 물살이 거센 곳이어서 일반적으로 고기잡이 배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發見者 박창석氏 등은 이곳의 험한 곳에 魚網을 설치하였다가 魚網을 魚船에 인양하던중 魚網에 걸려온 괴상한 것을 發見케되어 이를 整洗한 바 一般의 形으로 알려져 있는 高麗時代의 青磁로 생각되어 當局에 申告하였다 한다. 당초 본 遺物을 海中에서 인양하였을 당시에는 海草와 石花가 부착되어 있어 外見上으로는 무슨 것인지 識別키 어려운 狀態이었으나 石花와 海草를 除去하여 본즉 뜻밖에도 高麗青磁類와 같은 훌륭한 遺物들이었음이 判明케 되었다. 遺物 自體에 약간의 破損이 있는 것은 海草등을 除去하는 作業中의 破損이 사용하여 作業한 관계로 약간의 損傷을 가져왔다고 본 사람들이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충하여 이곳 현황을 말하는 바에 의하면 現在 이곳의 海中에는 이와 같은 遺物들이 상당히 埋藏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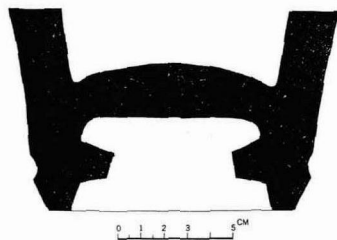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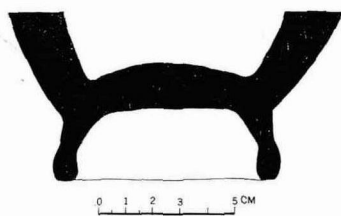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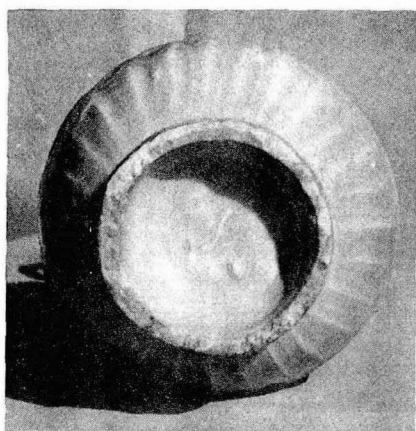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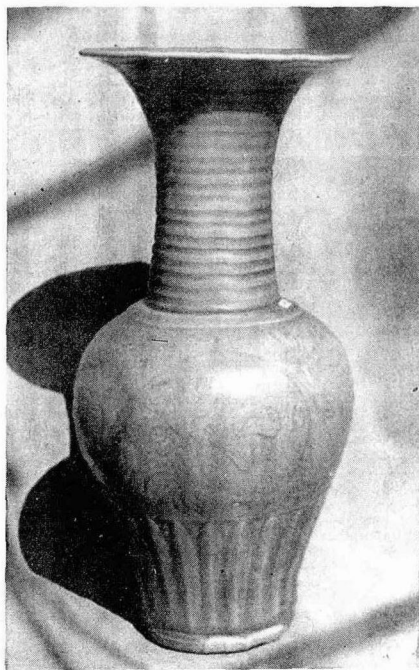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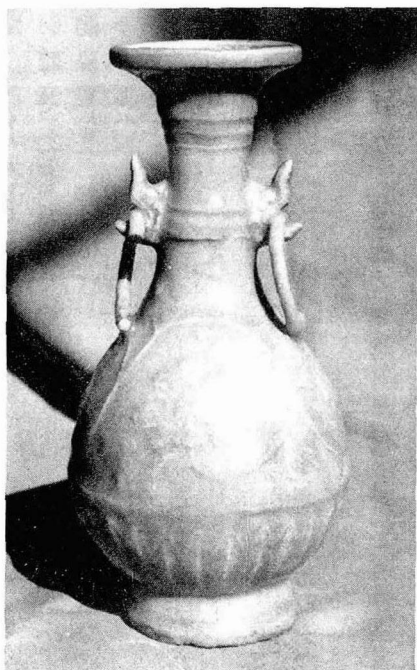
어 간혹 魚網을 설치하였다가 인양시에는 青磁類의 遺物들이 때때로 魚網에 걸려 인양되는 事例가 상당수 있다고도 한다. 以上の 發見經緯를 요약하면서 개개의 遺物特性들을 紹介하여 본다면는 다음과 같다.

一、青磁水瓶(圖版一)

全高 四五cm의 大形 青磁水瓶으로서 口緣部는 나팔처럼 내뿔었다. 器形의 全體形態는 中國의 青磁에서 보이는 一般樣式을 갖춘 水瓶으로서 우리의 青磁水瓶보다는 우아하고 균형이 잡힌 形態인 것은 아니다.

水瓶 全體에 덮혀있는 青磁釉藥은 褐色이 섞여있는 綠色으로서 釉藥의 色調가 몹시 탁하게 처리되어 있다. 또한 口緣部에서부터 水瓶의 肩部까지의 비례는 거의 二분의 一정도 차지하고 있어 우리의 青磁象嵌牡丹菊花文瓜形瓶^①과 같이 均衡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유난히 本水瓶의 頸部가 길게 뿔어서 處理되어 있는 관계로 어딘가 모르게 안정감이 없다. 또한 頸部에서 口緣部가까이까지 一九個에 달하는 環輪으로 處理되어 있을 뿐 하등의 文樣彫飾이 없다. 胴體에는 陰刻으로 蓮唐草文을 네 곳에 配置하고 있고 꽃줄기로서 四廓을 處理한 듯하게 되어 있는 것이 注目된다. 그리고 水瓶의 器腹部 中間部分서부터 下部에 까지 一三瓣의 蓮瓣으로 處理하고 있으며 器底部는 中國磁器에서 흔히 보이는 手法으로 處理되어 있으나 특히 本水瓶의 底部는 他二個와는 달리 圖版二一一과 二一一와 같이 凹凸形으로 處理한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으며 水瓶 內部壁面에도 바깥 부분과 같은 褐色이 섞여있는 綠色의 青磁釉藥으로 處理한 것이 특징이다.

全體의 形으로 보아 青磁水瓶의 形態나 釉藥이 청아하고 線이 부드럽게 處理되지 않고 있으며 어딘가 모르게 우둔하고 불균형한 形態를 갖추고 있다. 口緣部 역시 全體器形의 비례에 비하여 지나치게 廣口處理된 것이 주목되면서 어색하다.



圖版 2. 青磁龍頭附蓮牡丹文水瓶

圖版 1. 青磁水瓶

實測值

口緣部徑二〇・四 cm

頸 高一九・五 cm

胴體 高二五・五 cm

胴體 徑二二 cm

全 高四・五 cm

底 徑一一・二 cm

二、青磁龍頭附蓮牡丹水瓶(圖版二)

三個의 水瓶中 가장 균형이 잡히고 釉藥의 色調도 中國의 青磁에서 보이는 青磁釉藥과 같이 밝고 연한 綠色으로 處理된 水瓶으로 全體의 것으로 보아 華麗한 釉色과 器形을 갖춘 것이다.

口緣部는 나팔모양으로 되는 듯이 處理하다가 끝을 直立시킨 形態의 水瓶이며 頸部에는 二段의 屈曲面으로 處理하고 最下段에 속하는 屈曲面 兩쪽에 龍頭 一個씩을 配置하고 龍口에는 直徑五、五 cm의 環輪을 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現在는 半破되어 있는 狀態이다.

水瓶의 胴體에는 蓮花 二個、牡丹 二個를 各各 꽃줄기에 따라 交互로 配置되고 있는 것이 또한 특징이고 연꽃과 牡丹꽃 文樣을 陽刻으로 處理된 것이 주목된다. 胴體下部에는 돌출된 太線 一個로 處理하여 胴體를 兩分하였으며 그 下部에는 二七瓣의 蓮瓣을 陽刻으로 處理하였다.

器底部의 굽處理는 圖版四一와 四二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般的인 굽處理를 하였으며 굽 內部에 까지도 青磁釉藥으로 處理하였다. 아울러 水瓶頸部에서 부터 內部까지 이르는 內面壁 全體에도 青磁釉藥으로 處理하였다.

水瓶의 實測值.

口緣部徑 八・四 cm

頸部太線 두께 三・六 cm

龍頭 크기 三・二 cm

底 徑 八 cm

胴體 徑 一一・八 cm

全 高 二六・四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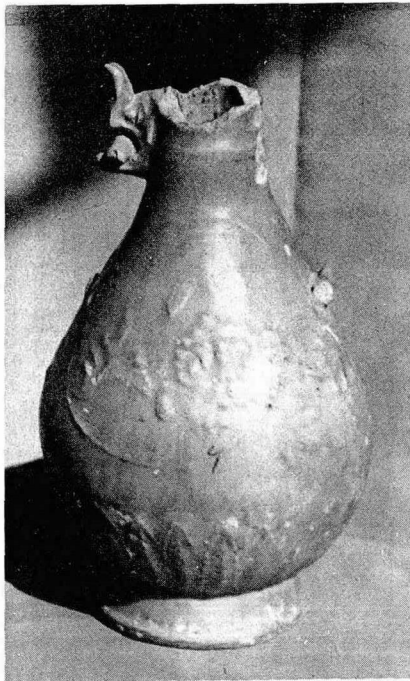
三、青磁龍頭附牡丹水瓶(圖版三)

三個의 水瓶중 가장 破損이 심하고 釉藥이 酸化되고 狀態가 좋지 않은 水瓶이다.

本水瓶 역시 龍頭附蓮牡丹水瓶(圖版二)과 類似한 水瓶이나 그 狀態나 釉藥등이 低質의 것이며 頸部以上은 破損되어 全高를 알 수 없는 破損品이다.

이 水瓶 역시 胴體에 牡丹文을 二個만 配置한 것이 특징이며 文樣의 處理는 陽刻으로 處理하였다.

굽 內部나 胴體 內部에도 바깥 青磁釉藥과 同一하게 處理하였다. 그리고 胴體下部에서 굽과 연결되는 部分에는 二六瓣의 陽刻蓮瓣으로 處理되어 있다.



圖版 3. 青磁龍頭附牡丹水瓶

實測值

現全高 二二八 cm

胴體征 一七・四 cm

頸部征 五・二 cm

底 徑 一〇・六 cm

四、其他

青磁托蓋臺와 白磁碗、白磁皿 등은 中國磁器에서 보이는 一般的인 器形樣式으로서 역시 그 製作時代도 前記 三個의 水瓶과 同時代의 것으로 본다.

以上の 青磁水瓶과 青磁蓋臺、白磁 등을 概觀하여 본다면 中國의 宋 때 流行하였던 越州窯系의 釉藥이나 器形處理가 아니고 釉胎의 資質과 煇造 기술은 역시 화려하였던 中國南方系의 龍泉窯에서 製造된 青磁類와 同一 同時代의 것으로 본다.

東洋陶磁大觀 七卷과 八卷에 수록된 青磁刻花牡丹唐草文瓶(泰定四年、西紀 一三二七年、元時代)、^③ 青磁刻花牡丹文瓶(一四世紀前半、元時代)^④의 龍泉窯系 青磁와 거의 同一한 釉藥과 형태를 가춘 水瓶들로서 이 水瓶 역시 그 時代를 一四世紀前半인 元時代 青磁水瓶으로 보아도 無理가 아니라고 보는 바이며 특히 北方系 青磁와 달리 南方系 青磁의 특징과 釉藥을 가장 잘 실현시킨 青磁水瓶으로서 우리나라 國內에 遺存하는 中國 青磁로서는 보기 드물게 大形인 동시에 특출한 것들이다. 또한 本遺物들이 發見된 新安郡 智島面 防禦里 一帶는 發見者들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海中에는 이와 같은 類의 遺物들이 상당량 沈沒되어 遺存한다고 하나 그 確實性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단 한가지 推定하여 본다면은 高麗時代 青磁가 宋의 越州窯系 統의 영향을 받아 發展하였다고 하는 것이 一般의인 통설이겠으나 이와 같은 遺物들이 出土되는 것으로 보아 越州窯系의 青磁技法은 勿論 華麗하고 精良한 南方系의 龍泉窯 青磁技法과 精絶한 釉胎處理法의 영향을

받아 從來에 이르러서는 宋 青磁와 對等하리만큼 青磁의 比약적 發展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본다.

특히 本 發見場所에서 近距離에 高麗 青磁窯址로서 유명한 全北 扶安 柳川里 窯址가 있고 또한 南海岸 쪽으로는 全南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 青磁窯址 등을 接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때 南方系 青磁와 우리나라 여러 유명 窯址와 어떤 깊은 관계^⑤를 갖거나 交易한 史實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다시 말하여 우리나라의 유명한 青窯磁址들이 內陸地方보다도 西海岸과 南海岸 一部에 걸쳐 대부분 상당수 分布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은 더욱 南方系 青磁技法과 釉藥處理法 등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고 보는 바이며, 특히 元의 침략 이후인 즉 一四世紀頃을 前後로 하여 그 영향이 더욱 깊게 우리에게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이다.

(註)

- ① 文化財大觀 國寶篇 四四八 Page 青磁象嵌牡丹菊花文瓜形瓶 解說參照
- ② 文化財大觀 國寶篇 四〇六~四〇七 Page 陶磁器解說文參照
- ③ 東洋陶磁大觀 七卷「베.비드.제.단 Collection」講談社刊 昭和五〇年 十一月 二五日 圖版三〇과 解說參照, 本 青磁水瓶의 實測値는 高七二・七 cm이며 青磁口緣部에는 다음과 같은 銘文이 있다.
「捨倉 劔川 流山 萬安社 居奉三寶弟子張進成 燒造大花瓶壹雙 捨入 覺林院 大法堂 佛前永充 供養 祈福保安 家門 吉慶者 泰定四年丁卯歲仲秋吉日謹題」(捨倉(處州) 劔川(龍泉縣) 流山의 萬安社에 속한 三寶의 弟子(佛教徒)張進成가 大花瓶壹雙을 燒造하여 覺林院 大法堂佛前に 奉納하여 오린 供養을 위하여 幸福、平安 家門의 吉慶을 祈願하는 것으로 泰定四年丁卯仲秋의 吉日에 謹題한다)는 銘文이 刻銘되어 있어 確實한 年代를 알 수 있는 青磁이다.
- ④ 東洋陶磁大觀 八卷「Grandier Collection」講談社刊 昭和五〇年 五月八日 圖版三三과 解說文參照, 本 青磁水瓶의 實測値는 高四八・三 cm、胴幅一九 cm、口徑二一・二 cm、底徑一一 cm이며 圖版三〇에 수록된 泰定四年銘 青磁水瓶보다 時代가 앞서는 一四世紀前半의 것으로 解說文에서는 보고 있다.
- ⑤ 文化財大觀 國寶篇 四〇六 Page 陶磁器解說文參照
中國古陶磁 毎日新聞社刊 昭和四六年 六月 一日 長谷部樂爾 概說의 第三章 宋代陶磁와 青磁의 系譜 解說文 參照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에능민수실장)